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 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Career Readies Behavior among the Undergraduate of Security Major

김 경 식

호서대학교 교수

Kim, Kyong Sik

Hoseo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현실 적합도가 높은 이론적 모형을 도출한 다음,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1년 현재 서울, 경기도 소재 3개 대학의 경호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130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AMOS 18.0과 SPSSWIN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경호경비학 연구영역에서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이 어떠한 진로장벽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결정짓는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경호경비학 지식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 및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현실 적합도가 높은 이론적 모형을 도출한 다음,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1.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나이문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신체적열등감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신체적열등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1년 현재 서울, 경기도 소재 경호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3개 대학의 경호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총 130명을 추출하였다.

2. 측정도구

설문지는 크게 개인적 특성, 진로장벽,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성, 학년, 연령, 공인자격증 수로 측정하였다. 진로장벽,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김종걸(2006)의 논문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진로장벽은 12개 문항, 진로결정효능감은 12개 문항, 진로준비행동은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단계로 평정하였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신뢰도 계수 또한 .60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4. 자료조사 및 자료 처리

이 연구는 연구의 내용 및 취지를 보조조사원에게 설

명한 후 이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은 AMOS 18.0과 SPSS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뢰도 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 등이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모형 검증

〈표 1〉은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이다.

〈표 1〉에 의하면, 초기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카이 자승값과 유의도,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등이 적합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합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일은 무의미한 것으로 사료된다(임변장, 김경식, 2002).

표 1. 초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전반적 지수

전반적 지수	χ^2 (Sig)	GFI	AGFI	RMSEA	CFI
구조모형	132.932/.000	.883	.831	.057	.938
적합기준	$p > .05$	$\geq .90$	$\geq .90$	$\leq .08$	$\geq .90$
판정결과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근사원소평균 자승오차(RMSEA), 비교부합지수(CFI)

이러한 경우에는 무의미한 경로제거, 공변량 자유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Anderson & Gerbing, 1988).

〈표 2〉는 모형 개발 제안 과정에 따라 모형을 수정하여 제안모형을 도출한 결과이다. 수정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경로를 제거하고, 측정변수간의 공변량을 자유화시켰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지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전반적 지수

전반적 지수	χ^2 (Sig)	GFI	AGFI	RMSEA	CFI
수정모형	96.183(.390)	.917	.907	.016	.995
적합기준	$p > .05$	$\geq .90$	$\geq .90$	$\leq .08$	$\geq .90$
판정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근사원소평균 자승오차(RMSEA), 비교부합지수(CFI)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가설 검증

〈표 3〉은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할 결과이다.

표 3. 가설 검증

가설	가설 경로	경로 계수	유의도	채택 여부
1	자기명확성부족→효능감	-.339	.009	채택
2	자기명확성부족→준비행동	-.042	.768	기각
3	나이문제→효능감	-.327	.007	채택
4	나이문제→준비행동	-.037	.793	기각
5	신체적열등감→효능감	-.145	.244	기각
6	신체적열등감→준비행동	.213	.129	기각
7	진로결정효능감→준비행동	.627	.000	채택

〈표 3〉에 의하면,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결정효능감($\gamma = -.339$),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gamma = -.327$)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beta = .627$)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3, 7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 4, 5, 6은 기각되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명확성이 부족할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은 약화된다.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나이문제는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즉, 나이문제를 느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은 약화된다. 넷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나이문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신체적열등감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신체적열등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곱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진로결정효능감이 클수록 진로준비행동은 강화된다.

■ 참고 문헌 ■

- [1] 김종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8.
- [2] 임변장, 김경식, "관람스포츠소비행동 구조모델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5권, 제1호, pp.31-46, 2002.
- [3] Anderson, J. C., & Gerbing, D. W., "The effect of sampling error on convergence, improper solutions, and goodness-of-fit indices for maximum likeliho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49, pp.155-173, 1998.